

데뷔작부터 칸까지...배우 변희봉은 감독 봉준호의 페르소나

봉준호 감독 영화 7편 중 4편 출연 최다
데뷔작 '플란다스의 개'부터 나오기 시작
봉준호 감독 초1 때 변희봉 연기에 반해
살인의 추억·괴물·옥자 등서 명연기 펼쳐
'옥자'로 칸...“70도 기운 고목나무에 꽃”

지난 18일 세상을 떠난 배우 변희봉(81·변인철)은 가장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였다. 그는 봉 감독의 장편영화 데뷔작인 플란다스의 개(2000)를 시작으로 봉 감독 영화 7편 중 4편에 출연했다. 배우 송강호 역시 봉 감독 영화 4편에 나왔는데, 변희봉은 송강호와 함께 봉 감독 영화에 가장 많이 출연한 배우 중 한 명이다. 두 사람은 '살인의 추억'(2003)과 '괴물'(2006)에서 호흡을 맞췄고, '괴물'에선 부자 연기를 하기도 했다.

송강호가 봉 감독 영화에서 주연이었다면, 변희봉은 비중 있는 조연을 도맡았다. '플란다스의 개'에서 변희봉은 영화 주 무대가 되는 아파트 경비원 '변 경비' 역을 맡았다. 동네에서 개가 사라지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리는 이 작품에서 변 경비는 돌아다니는 개를 잡아 먹는 다소 섬뜩한 캐릭터를 연기했다. 출연 분량은 많지 않았으나 이 영화 특유의 독특한 서스펜스를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변희봉이 '플란다스의 개' 출연 제안을 받고 시나리오를 탐탁치 않아 했다는 얘기는 잘 알려져 있다. 역할이 경비원인데다가 개를 잡는 이야기라는 걸 알고 "그게 영화감이야"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봉 감독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변희봉이 나온 TV 사극을

보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 존경해왔는지 말하며 변희봉을 설득했다고 한다. 그렇게 봉 감독과 변희봉의 인연이 시작됐다.

변희봉은 봉 감독의 걸작 중 하나인 '살인의 추억'에도 나왔다. 박두만(송강호)·조용구(김희하) 수사팀 반장 '구희봉' 역이었다. 구희봉은 두만과 용구가 수사하는 연쇄 살인 사건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반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인물이었다. 특히 '살인의 추억'의 명장면 중 하나인 눈두렁 톱테이크 신(scene)에서 눈으로 내려오다가 넘어지는 자연스러운 슬랩스틱 연기를 보여줘 관객의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변희봉을 향한 봉 감독의 애정은 변희봉의 이름을 배역 이름에 넣는 것으로도 잘 나타났다. 변희봉은 '플란다스의 개'에선 변 경비, '살인의 추억'에선 구희봉이었고, '괴물'과 '옥자'(2017)에서도 캐릭터 이름이 '희봉'이었다. 봉 감독은 변희봉을 "광맥"으로 표현한 적도 있다. "캐도 캐도 뭐가 더 있을 것 같은 궁극한 배우"라며 "계속해서 (변희봉에게서) 뭔가를 더 캐내고 싶다"고 말했다.

봉 감독의 첫 번째 1000만 영화 '괴물'에서 변희봉은 그가 출연한 봉 감독 영화에서 가장 큰 역할을 맡아 뛰어난 연기력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아들 강두(송강호)와 한강 앞

편의점을 운영하는 할아버지 희봉을 연기한 그는 손녀를 구하기 위해 물불 안 가리고 괴물과 맞서는 모습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달려오는 괴물을 마주하자 아들 강두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치던 변희봉의 표정은 당시 평단으로부터 "변희봉만이 보여줄 수 있는 페이스"라는 극찬을 받았다. 또 강두와 오징어다리 갯수를 두고 대화하는 영화 초반 장면은 "변희봉만이 할 수 있는 생활 연기"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변희봉은 '옥자'에선 주인공 미자(안서현)의 할아버지 희봉을 연기했다. 이 작품으로 변희봉은 70회 칸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으며 연기 인생 정점에 섰다.

이후 한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봉 감독과 함께 출연해 칸영화제에 갔던 일을 언급하며 "길이 길이 내 기억에 남을 일이다"며 "눈 감을 때까지 이 기운을 가져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봉 감독은 "앞으로 자주 가시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변희봉이 당시 칸영화제 기자회견에서 "70도로 기운 고목나무에 꽃이 핀 기분"이라고 말한 것도 큰 화제가 됐다.

변희봉이 봉 감독의 또 다른 걸작 '마더'(2009)에 출연하고 싶어했다는 일화도 잘 알려져 있다. 봉 감독이 '마더'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변희봉은 봉 감독에게 배우 김혜자가 연기한 '엄마' 역을 두고 "서방은 없나"고 물어봤다는 것이다. 평소 변희봉은 김혜자와 함께 연기하고 싶어했다고 한다. 변희봉은 "난 평생 흠애비 역할만 했고, (김혜자와는) 신분이 달라서 함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봉 감독은 변희봉을 '기생충'(2019)에 캐스팅하려 했다는 얘기도 유명한 일화다. 그러나 당시 변희봉 건강이 악화하면서 출연하지 못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내달 14일 정규 3집 컴백 쇼케이스 연다



타이틀곡 등 선보일 예정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가 정규 3집 발매를 기념해 컴백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19일 0시 글로벌 팬덤 플랫폼 위버스(Weverse)를 통해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내달 14일 오후 4시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이름의 장:프리폴(FREEFALL)' 컴백 쇼케이스를 연다.

이번 컴백 쇼케이스에서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정규 3집의 타이틀곡과 수록곡 등 여러 무대를 선보이고 신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한다.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팬들을 위해 온라인 스트리밍도 병행된다. 온라인 스트리밍 관련 상세 내용은 추후 공지된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내달 13일 '이름의 장:프리폴'을 발매한다.

임영웅, '놀토'도 나온다...연이은 예능 출연



가수 임영웅이 tvN 인기 예능 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이하 '놀토')에 출연한다고 소속사 몰고기뮤직이 19일 밝혔다.

최근 SBS TV 예능물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한 임영웅은 '놀토'까지 예능에 연이어서 출연해 '영웅시대'가 반가워하고 있다. 임영웅은 이번 '놀토' 출연에서 첫 받아쓰기와 간식게임 등에 임할 예정이다. 임영웅이 출연한 '놀토'는 오는 10월 중 방송될 예정이다.

한편 임영웅은 2023 전국투어 콘서트 '아임 히어로(I'M HERO)'를 앞두고 있다. 다음달 27-29일, 오는 11월 3-5 서울 케이에스포 돔(구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포문을 연다.

이후 11월 24-26일에는 대구 엑스포 동관, 12월 8-10일 부산 벡스코 제 1전시장 1·2홀, 12월 29-31일 대전 컨벤션 센터 제 2전시장에서 공연을 진행한다. 이후 광주 콘서트는 내년 1월 5-7일에 열린다.

이븐, '보이즈플래닛' 파생 그룹? 대중 워너비 목표

엠넷(Mnet) 보이그룹 서바이벌 '보이즈플래닛'의 파생 그룹 '이븐(EVNE)'이 19일 베일을 벗는다.

이븐은 '보이즈플래닛'에 출연했던 그룹 '싸이퍼' 키타를 비롯해 박한빈·이정현·유승언·지윤서·문정현·박지후 총 7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고 팀 활동을 시작한다.

팀명 이븐에는 밤하늘에 새로 떠오르는 별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 밝게 빛나며 모두의 시선을 끌겠다는 각오가 담겼다. 첫 번째 미니 앨범 '타겟 : 미(Target: ME)'에는 나를 대중이 원하는 타겟으로 만들겠다는 포부가 담겼다.

지난 14일 선공개한 타이틀곡 '트러블(TROUBLE)'은 베이스 음악을 기반으로 한 볼티모어 클럽 장르의 곡이다. 긴장감이 감도는 리듬과 중독성 있는 브라스 리프가 매력적이며, 여유로운 모습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이븐의 모습이 돋보인다.

데뷔 앨범부터 멤버들의 참여도도 높다. 수록곡 '주크박스(JUKEBOX)'에는 지윤서와 이정현이, '이븐 모어(EVEN MORE)'에는 키타와 지윤서가 가사를 썼다.

'보이즈플래닛' 최종 데뷔조 탈락...팬덤 구축



배우 장서희, 스크린 복귀...11월 '독친' 개봉

배우 장서희의 스크린 복귀작 '독친'이 오는 11월 개봉을 확정했다.

'독친'은 독이 되는 줄도 모르고 지독한 사랑을 주는 엄마 혜영(장서희)이 딸 유리(강안나)의 죽음을 추적하며 충격적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미스터리 현실 공포 심리극이다.

론칭 포스터에 따르면 '독친'은 '자식에게 독이 되는 부모' '지나친 간섭으로 자식을 망치는 부모'라는 뜻이다.

론칭 포스터에는 '독친'의 뜻 위로 엄마에게서 온 메시지가 보여 엄마와 딸의 관계성을 짐작하게 만든다.

장서희는 '중2라도 괜찮아' 이후 6년 만에 스크린에 컴백한다. 딸에게 지독한 사랑을 주는 혜영 역을 맡아 우아하면서도 이면의 독하고 서늘한 모성에 연기를 펼친다. 장서희와 독한 모녀 연기를 펼칠 딸 유리 역은 넷플릭스 시리즈 '중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에 출연한 신예 강안나가 맡았다.

'독친'은 김수인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김 감독은 2019년 장편영화 '월채'로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우수상을 수상한 후, '옥수역귀신' 등 다양한 장편영화에 각본 및 각색으로 참여하며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독친'은 올해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공식 초청을 받았다.

일본 제28회 아이치국제여성영화제에 공식 초청돼, 지난 14일 김 감독과 장서희, 강안나가 기자회견과 GV를 진행했다.